

# 전주시민 제안 사업 정책 반영

전주시가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시는 14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약 4주간 시정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전주시 발전을 견인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2018 시민·공무원 제안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정책제안 공모는 시민들의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공모와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해 전주시 발전을 견인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공무원 공모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시민 공모의 경우,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사업(문화·관광)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강화사업(일자리) △미래 명품도

시, 내달 8일까지 시민·공무원 정책 제안공모 실시

시민, 문화·관광·일자리·생태분야 응모 가능

공무원, 정부정책 방향에 맞춘 성장동력사업 등 응모

시 기반구축사업(도시활성화·생태환경 분야) △가장 인간적인 복지정책(사회복지분야)의 4개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공모의 경우,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해 전주시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사업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사업 △전주문화특별시 연계사업 △기타 전주시의 특화된 사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국책 사업, 공공부문의 투자 또는 국비지

원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제안들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경제성·실용성 등을 평가한 뒤 실무부서의 검토와 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획득한 것이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공무원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의 공모제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106)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시정 발전 아이디어와 전주시를 견인할 신규사업 제안공모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 부안해경, 침수선박 신속 구조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수중장애물에 걸려, 기울어져서 갑판이 침수된 S호를 신속 구조했다.

13일 부안군 격포항 내 개방형 회센터 앞 인벽에서 오후 6시 6분경 갑판이 침수된다는 신고를 받은 부안해경은 변산파출소와 해경 구조대, 해양오염방제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부안 해경은 선저 파공 상태와 해양오염이 없음을 확인 후, 에어버스를 봉쇄하고 배수펌프를 가동해 배수작업 실시 후, 크레인을 활용 인양했다.

이 선박은 해경의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선체파손 및 해양오염 없이 안전지대에 계류 조치됐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출항이나 운항 중 점검도 중요하지만, 서해는 조석 차가 커서 입항 등 정박 후에도 선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우리밀 만져볼까?"

14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주최로 열린 우리밀 특별전시회 행사장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밀밭 포토존에서 밀을 만져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황숙주 군수 등 순창군청 공무원 무더기 경찰 조사

경찰, 지방선거 앞둔 SNS 홍보글 게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황숙주 순창군수 등 순창군 소속 공무원 1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순창경찰서에서 따르면 황 군수 등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황 군수에 관한 홍보글을 게시하고 공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는

모두 순창지역 면장이나 계장 등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황 군수가 SNS에 올린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만났다. 행사에 참여해 활동을 벌였다' 같은 게시글 등을 공유해 선거를 앞둔 황 군수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

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황 군수 지시에 의한 홍보활동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순창군 주민 A(59)씨는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황 군수의 업적 등을 130여차례에 걸쳐 공

하는 등 규정을 무시했다"며 황 군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오래도록 노동계에서 활동하며 공무원들의 비리를 봤는데,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그냥 넘길 수 없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위를 받아 이들을 조사한 뒤 최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검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 '오월의 진실' 을 기억하라

5·18 전북영화제 18-20일 열려

제38주년 5·18민중항쟁기념 전북 행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5·18 전북영화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영호 전 함일장신대 총장이 명예조직위원장을, 김완술 전북행사 위원회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또 전북독립영화제를 이끌어 온 조시돈씨가 프로그래머로 활약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과 폐막작을 포함해 모두 6편이 상영된다.

개막작은 이재 감독, 송영창 주연의 '기억하라'로 오는 18일 오후 7시에 상영된다. 상영 시간은 23분이다.

1000만원이 투입된 이 영화는 광주항쟁 당시 고등학생을 사살한 뒤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공수부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오는 19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0분에는 5·18을 다룬 영화 '오! 꿈의 나라'와 '공중전범'이 상영된다.

또 이날 오후 4시에는 제4·3사건을 기록한 영화 '레드헌터'가 상영되며,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마련돼 있다.

영화제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11시에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부당성을 깨닫는 주인공의 처절한 항



5·18 전북영화제 포스터

쟁기를 담은 영화 '부활의 노래'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박효선 감독의 '레드브리(붉은벽돌)'이 폐막작으로 준비돼 있으며, 5·18전문극단인 '보박이'를 이끌어 온 박 감독이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각본을 쓰고 연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영화는 광주 항쟁으로 충격을 받은 택시운전사가 피해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당성을 깨닫는 주인공의 처절한 항

다. /기동취재반

## 군산 50대 사망사건 놓고 유가족 vs 교도소 대립각

유가족 "골든타임 놓쳐" 교도소 "절차 따라 이송"

군산교도소에서 수감했던 50대 재소자의 사망과 관련 유가족과 교도소 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유가족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가 두통, 어지럼 증세 등을 동반한 고통을 80여일 넘게 호소했는데도 교도소 측이 이를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가족들은 "군산교도소에서 타 교도소로 이감 후에 고인의 심각한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 계속된 치료를 받았지만 5월 6일 통증을 호소한지 160여일 만에 혈액암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가족 측의 발표에 군산교도소는 자료를 통해 고인의 의무기록부 확인 결과, 지난해 고혈압으로 외부병원 약을 허가받아 복용했고 우측 어깨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두통, 어지럼증 등 사망원인과 관련된 다른 증세는 고인이 호소하지 않았으며 진료 시 관찰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2017년 11월 두통 및 어지럼증을 교도소에 호소하였으나 방치하였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인이 의무기록 진료시에 위 증세에 대해 직접 말한 사실이 없으며 올해 2월 어깨통증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군산시 소재 차병원 정형외과에 진료예약이었으나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 대한 통상의 절차에 따라 같은 달 타 교도소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